

[8 차시] 가사노동

[학습내용 -1] 가사노동의 발견과 재분배

1) 어머니의 사랑과 낭만적 사랑이라는 가족이데올로기는 가족의 핵심을 정서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가족은 상당량의 일을 해야 하는 장소이다. 가사노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4가지 기본적인 가사노동서비스, 자녀양육, 의, 식, 주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가정생활을 창출하고자 한다. 가사노동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가사노동은 필수품과 필수품이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가사노동은 필수품의 두 가지 개념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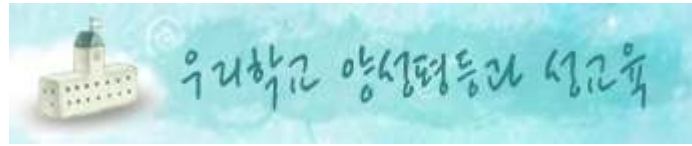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1) 가사노동의 일부는 생존수준에서 생활을 지원하고 재생산하는데 필요하다

(2) 자녀와 어른의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부문이다.

이러한 두 수준을 넘어서서 가사노동은 필수품이상의 가치(주부의 여가 또는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비필수적 노동)를 생산한다.

2) 가사노동은 임금노동보다 덜 가치적이며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독립을 가능케 하는 것도 아니다. 가사노동은 가족 내부의 정서적 생활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가사노동은 가족원이 수행하는 소비활동과 반비례하여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하였으며 소비활동의 증가는 가사노동의 지각된 가치를 더 하락시킬 것이며, 또한 가족 내에서 주부인 여성의 협상 권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3) 남성은 가족부양의 의무, 여성은 가사노동, 육아 출산 및 정서적 감정노동을 담당하는 전통적 성별노동분업이데올로기는 맞벌이 가구의 수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관념을 강화한다. 시간할당연구는 여성이 상황과 관계없이 남성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일제 취업을 한 여성은 직무 이외에 주당 26~35시간의 가사노동을 한다. 그들의 남편은 전업주부의 남편과 동일하거나 약간 더 많은 보통 주당 10~14시간의 가사노동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주부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28분이나 되는데 비해 남편은 32분밖에 하지 않았다. 즉 맞벌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6.5배에 이른다. 수입노동(소득을 위한 노동)은 맞벌이 주부가 5시간 14분으로 남편의 6시간 34분보다 짧지만 가사노동까지 합치면 주부가 8시간 42분으로 남편의 7시간 6분보다 더 길다 (통계청 2007년, 대한민국 행복테크)



[8 차시] 가사노동

[학습내용 -2]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이해

자유주의 페미니즘: 가족은 사적인 고유한 영역이며 정치적 개입에서 자유 해야 한다. 공사의 분리를 주장한 자유주의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의 가치나 사회적 중요성 파악에 실패했다. 가족과 사회라는 이분법적 경계는 허구이다. 가족이 사적이라는 주장은 결국 여성과 아동의 외부와의 접촉과 외적 자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족은 아이들의 성불평등한 젠더역할과 이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전수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Michelle Barrett Mary McIntosh 반사회적 가족 Anti -Social Family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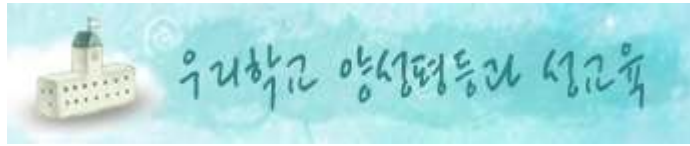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은 성별노동분업의 산물이고 이는 가족 내의 불평등문제로 이어지는데 이 가족 내 불평등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다루면서 노동시장의 평등이 곧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가족노동의 불평등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한다. 단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가사노동과 출산 육아는 이중노동부담이 됨으로 가족생활을 사회화하려는 관심은 있다. 개별가구마다 하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기본을 사회와 국가가 조직하고 일정 정도 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족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반영한다. 남성이 집안일과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않으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들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의 문제도 몇몇 개인남성들의 일탈적 행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산물로 본다.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한다.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재구조화

가족의 내적 생활, 가사노동은 노동의 한 형태로서 경제조직 국가 여타 제도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은 임금 노동력을 유지시키고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이해되며, 결국 자본의 이익에 봉사한다.

John Radcliffe Richards 1982 Susan Moller Okin1990들은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철학에 의거하여 사회의 정의는 가족 내의 정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사적인 경제적 의존과 빈곤은 동등한 시민권이나 가정의 파트너관계와 양립할 수 없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만 가정의 학대나 폭력에서 벗어



[8 차시] 가사노동

날 수 있다

아드리엔느 리치 (Adrienne Rich)는 모성과 가족을 거부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부장제 하에서 정의되고 제한되고는 방식들을 공격한다. 그들을 창조성과 힘의 근원을 가지고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해야 한다. 자녀를 둔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지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어떤 사회적 부담보다도 무겁다. 왜냐하면 여성과 그 자녀 간에 맺어진 감정적인 유대관계는 강제노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성을 약하게 만든다. 강제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관이나 주인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고 하는 일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훨씬 더 복잡하고 파괴적인 감정의 희생자가 된다. 어머니역할에 대한 분노는 아이들에 대한 분노로 바뀔 수 있으며 ‘자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고,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모든 것 때문에 느끼게 되는 슬픔은 자책감과 자기고뇌로 바뀔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소위 ‘무력한 책임’이라고 불리는 일을 담당해왔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와 동시에 어머니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생계를 책임지는 일보다도 더욱 힘든 부담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특정지역에서는 가난과 실업 뒤에 경제적인 요소와 정치적인 억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 했을 때’ 어머니의 인격,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지위자체가 문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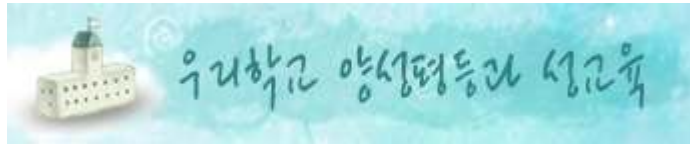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1980년대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양육과 협동 평화와 조화라는 모성과 ‘여성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Lynne Segal은 이를 ‘모성의 부활’이라고 한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인 쇼드로우(Nancy Chodorow)는 양육의 가치와 가족재구성의 가능성에 대한 강조한다. 여성의 양육의 독점은 감정적으로 부적절한 남성과 돌봄에 과잉 투자하는 여성을 만듦으로써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사라 루딕(Sara Ruddick, 1990)은 어머니 일의 수행이야말로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연관된 가치체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함께 중요하다

[학습내용 -3] 가사노동의 가치산정의 문제

1) 여성의 전통적인 노동인 가사노동이 여성으로 하여금 가사노동에 더 강화시키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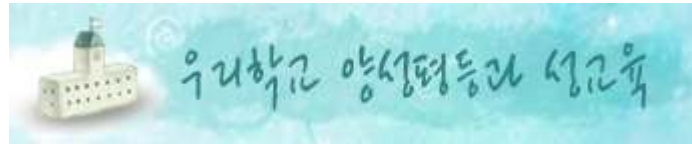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8 차시] 가사노동

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인정받느냐의 문제이다. ‘가정주부에게 임금’이라는 주장은 집안일이 결국 주부의 일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 여성을 다시 가사노동으로 제한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 덕분에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이후 모든 것이 변했으며 이제 가사노동은 소수 여성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제지 기자 앤 크리텐튼은 저서 《모성의 가치》에서 가사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직종이며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도 단연 전업 주부이다. 심지어 가장 우수한 혜택을 받고 최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조차 이 범주에 속하곤 한다. “전통적인 가족유형은 재산이나 계급, 인종의 경계를 초월해서 유지 된다. 미국에서 대졸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졸여성이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밖에 없다.”

2) 앤 크리텐튼에 의하면 “모든 부의 3분의 2는 바로 ‘인적 자본’으로 알려진 인간의 기술과 창조력, 모험심 덕분에 창조된다. 경제학자 셸리 버그라프의 표현대로,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말 그대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재화의 창출자’라는 말이다.” 물론 사회의 교육체계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창조성을 길러주고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할 기술을 키워줌으로써 ‘인적 자본’을 창출하는 데 막대하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심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안정된 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시설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편이고, 성장해서 ‘중요한 재화의 창출자’가 되기도 어렵다. 학교는 단지 가정에서 미처 얻지 못했거나 게을리 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는데도, 전적으로 혹은 직장과 병행하여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은 그 부분에 대해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곤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의 일’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화폐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일에 종사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가치를 갖는 일에 종사함을 뜻한다. 결국 여성들은 엄청나게 고생스러운 중요한 일을 해내면서 그 보수를 받기는커녕, 수입이 줄고 기회를 놓치고 많은 경우 심각한 재정적 불안정을 감수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3)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준비되고 여성들의 자기 정체감과 개인적 능력에 대한 감각은 가정경제에 기반을 둔다.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을 할 때조차도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적정수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느 면으로 보나 평가절하 되는 일을 아무런 보수도 없이 맡아 행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그리고 다



[8 차시] 가사노동

른 성인여성들이 살아가는 시간 대부분을 무보수노동에 바치는 것을 줄곧 목격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경제적 척도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 가사노동의 가치산정문제는 가정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로 인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문제는 늘 어려움에 봉착해왔다 가정주부는 아이들과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별화된 경제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가정경제의 가치를 수량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가정경제와 시장경제의 산출물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경제는 개인과 가족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며 사적인 보살핌과 양육은 가정경제의 임시적인 대체물들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이 돌보기, 외식, 파출부등의 비용으로). 또한 시장은 가정경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항구적인 대체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시장은 교환가치를 노동력가치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취업여성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알게 되는 데 반해 전업주부는 그렇지 않다

5) 전업주부의 연봉을 25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인부 일당 삼성증권이 서울 남부지법이 2005년 교통사고피해자들과 보험사간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주부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일반근로자’가 아닌 ‘특별인부’ (특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숙련된 근로자)에 준하는 일당을 적용한 사실을 토대로 연봉을 산출했다.

즉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다 키우는 평균기간인 28살부터 50살까지 특수인부의 일당 7만 4230만원(대한 건설협회발표) 을 적용하면 총 임금은 4억7천만 원이고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100만원이 된다. 또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후반으로 갈수록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5년마다 임금10%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노동 가치는 총 5억8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연봉으로는 2500만원이 된다. (2007년 5월 21일자 한겨레)